



진관사 경내에 핀 노란 코스모스 짙은 생명의 손수를 지켜내는 공간이다.



서울의 진산인 삼각산 서쪽 기슭에 자리잡은 진관사.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드나드는 수많은 발길에 시달리는 절이지만 산사의 고즈넉함을 잃지 않고 있다.

고려 현종이 진관스님에 대한 보은으로 세운 1,000여 년의 역사는 석축으로 남아 있고, 현재의 전각은 1964년부터 최진관 스님이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다.



삼각산 진관사



俗에서 聖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구니 수행처...소박·정갈

가끔씩, 궁핍했던 지난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힘겹게 보릿고개를 넘어온 분들한테는 호강에 겨운 푸념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코 체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외국의 한 동방가가 쓴 글에서 1950년대의 내란에 관한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돈 체리로 에베레스트를 오르려는 일도 거의 없었던 그 시절에는, 그야말로 '순수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한 예로 카트만두 거리에 '가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가난은 문명의 산물"이라는 어느 경제학자의 말도 생각이 납니다. 동감입니다.

절 찾아 가는 길에 웬 사슴이나고 무엇도 싶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진관사 가는 길목이 절로 이런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더군요.

서울 도심에서 북한산성을 향해 달리다 보면 구파발 못 미처서 진관사 길이 나타납니다. 아늑한 건물, 드문드문 70년대식

간판, 길 가의 플라타너스. 개발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의 세트처럼 보는 듯한 느낌. 하지만 그 느낌은 대도시의 번두리 어디에도 보이는 스산함과 다릅니다. 그곳엔 온기가 있습니다. 더 넓게, 더 멀리 뻗어 나가기 위해 인간됨을 쓰던 개발의 도미노가, 불현듯 주춤거리며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듯도 합니다. 이른바 '그린벨트'의 초상입니다. 당연히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는 골사나운 모습일 것입니다. 땅 값도 집 값도 오르질 않으니, 이만저만 속상한 일이 아닐 테지요. 그 심정 충분히 알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어찌했습니까, 그 길을 지나면서 나는 서울이라는 이 거대한 회색 도시가 조금은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진관와동 1번지, 북한산의 비봉과 향로봉으로 오르는 초입, 70년대 도시 분위기를 산으로 몸을 바꾸는 그곳에 진관사가 있습니다. 인공에서 자연으로, 속(俗)에서 성(聖)으로, 가(假)에서 진(眞)으로 가는 징검다리 그렇게 서 있습니다.

행인의 옷을 입은 가난, 남부하지 않은 결핍, 절이 산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관사 마당에는 이미 가을 햇살이 곱게 내려앉아 풀벌레 소리를 자장가 삼고 있습니다. 땀을 위에 가지런히 벗어놓은 하얀 고무신을 보며 마음의 때무새를 다시매 봅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처라서 그런지 모든 것이 아담하고 정갈합니다. 도량 곳곳에 꽃들이 곱습니다. 도라지꽃, 수국, 백일홍, 채송화, 노란 코스모스가 누구하나 시새워하지 않고 제각기 빛납니다. 드문드문 옥부쟁이도 이곳이 서울의 진산인 삼각산 자락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고려 현종 비화 간직

그런데, 진관사의 황건 배경에는 지금의 정갈함과 거리가 먼 세속적인 얘기가 전해옵니다.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나 보겠습니다.

고려의 다섯 번째 왕인 경종이 세상을 떠나자 젊은 왕비는 태후가 되어 시를겨운 세

월을 보내게 됩니다. 드디어는 슬픔이 깊어 병이 되니, 파계승 김치양과 정을 통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빛나간 결혼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아이를 왕위에 앉히려는 기도를 합니다. 마침 일곱 번째 왕인 목종에게 후사가 없었으나 태조의 직손인 대량원군이 그 자리를 잇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태후는 대량원군을 진관(津寬) 스님이 출로 수도하는 신원사라는 조그마한 절에 유배시키고 적당한 틈을 타서 없애려고 합니다. 이에 진관 스님은 그것을 알고 수미단 밑에 굴을 파고 12살 먹은 대량원군을 숨겼습니다. 목숨을 구한 아이가 후일 왕의 자리에 오르니 그가 바로 여덟 번째 왕인 현종입니다.

현종이 어찌 진관 스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신원사 터에 진관 스님의 이름을 딴 대가람을 세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왕실의 보살핌은 계속되어 태조는 수목사(水陸社)를 설치하여 육지와 수중의 고혼들에게 법식(法食)을 베풀었습

니다. 세조 때 불타 없어졌다가 철종 때 중수하여 명맥을 이었으나 6·25때 철성각과 독성각만 남고 다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1964년부터 진관 스님이 당우를 다시 세워 오늘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경전 독송 한글로

역사적 배경에 비해 오늘의 진관사는 소박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찬찬히 살펴볼 만한 구석도 많습니다. 우선 철성각과 독성각입니다. 사방 벽면을 돌 조각으로 세워 올린 모습은 민예적인 질박함에 수공예적 정성으로 윤기가 흐릅니다. 안에 모셔진 철성도와 영정, 그리고 산신도는 모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조선 후기 불교 미술의 한 면을 곱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역시 서울시 무형문화재인 나한전의 16나한상은 자그마한 크기에 각기 개성적인 표정으로 보는 이의 눈길을 온유한 미소를 머금게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도드라져 보이는 진관사의 미덕은, 이 시대에 필요한 행태의 밑

음이 살아 숨쉬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예불과 법회 의식에서 경전 독송은 한글로 합니다. 가족 모두가 절에 와서 내집처럼 머물 수 있다는 점도 여간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법회, 청소년법회, 어린이법회가 매주 열리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진관사에서만큼은 차마불교라는 자조적인 말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산을 오르며 삼신의 피로를 내려놓으려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도 많은 사람들은 산을 그저 리빙머신쯤으로 여깁니다. 그곳에 절이 깃들어 있어 신의 신령함을 지켜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살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 혹은 아련한 옛 추억에 잠기고 싶을 때, 진관사를 찾으십시오. 버스 갈 동전 몇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피의 순수를 한아름 가득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박보하(사진가)

봉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108참배 금강경 사경 및 큰스님 초청 7일 정진 대 법회 축

도심속의 포교전당

본 금하선원은 2001년 인도 가니스와르 고승으로부터 부처님 사리 5과를 모셔왔습니다. 이제야 우리 불자님게옵서 2546년 전 부처님의 진신사리 친견 참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하선원은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108참배와 금강경 사경 및 큰스님 초청 7일 정진 대 법회 1000일 기도 입제를 병행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금강경 사경 불탑 봉안

- ◆ 금강경 사경 완성 후 불탑에 봉안 됩니다.
-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본 사찰로 전화주시면, 금강경 사경을 택으로 우송, 사경 완성 후 본 사찰로 보내 주시면 불탑에 봉안해 드립니다.
- ◆ 성지 순례차 오시는 주지 스님과 신도분들은 미리 전화주시면 점심공양을 준비해 드립니다.

일 정 표	
2002년 10월 14일(월) - 10월 20일(일)	
오전(10:00) 사시기도	(11:00) 큰스님 법어(11:40) 백발 참배 및 진신사리 친견 (12:30) 점심공양 (14:00) 금강경 사경 (15:00) 회향

법회 집행 위원회

- ◆ 회 주: 일륜 ◆ 주 지: 청암
- ◆ 집행위원장: 신도회장 ◆ 집행부원장: 거사림 회장, 신도 부회장
- ◆ 위 원: 금하선원 신도회, 거사림회, 불교 교양대학 1기~17기생
- ◆ 사 무 장: 덕광 ◆ 재 무: 여래심
- ◆ 포 교 임 원: 금하선원 신도 회장단, 거사림 회장단, 불교 교양대학: 1기~17기 총무단

- 일 시: 2002년 10월 14일 오전(10:30)
- 장 소: 금하선원 법당
- 사경법회 동참비: 5만원(금강경 사경책 3권 포함)

- 음 력: 9월 9일.
- 접수기간: 2002년 9월 25일~ 10월 13일

대한불교 조 계 종 금 하 선 원

전화 02)823-9135-6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7호선 장승백이역 4·5번 출구 1분거리